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 중학교 자유학습지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엔터저  
www.m-teacher.co.kr

vol.25 | 2018년 11월호

##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 넥슨컴퓨터박물관 ‘꿈이 IT니?’

## “내가 만든 게임, 같이 해보실래요?”



‘이치코딩’ 프로그램에 참여해 블록코딩을 활용해 나만의 3D 게임을 만드는 학생들의 모습. 넥슨컴퓨터박물관 제공

2018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최초로 시범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게임’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게임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콘텐츠인 만큼 수출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62억4000만 달러(약 7조 400억원)를 기록했는데 수출액의 무려 55%를 게임이 차지한 것. 이는 K-POP으로 위상이 높아진 음악(7%)의 약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로 인해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

제주시에 위치한 넥슨컴퓨터박물관에서는 게임개발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꿈이 IT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게임 관련 진로적성탐구 △코딩교육 △게임개발과정 체험 등으로 이뤄졌다. 넥슨컴퓨터박물관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부가 지정한 ‘2017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꿈이 IT니?’는 게임개발에 관한 다양한 진로 교육을 제공한다. ‘웰컴 스테이지’에서는 게임관련 직업군을 탐구한다. 학생들은 게임 제작과정을 살펴며 게임개발자의 직무가 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등으로 세분화되며 각각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배운다. 이를 통해 게임개발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각 역할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살피며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탐색한다.

프로그래밍의 원리와 기초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이지코딩'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기초 교육을 받은 뒤 블록코딩을 활용해 직접 나만의 3D게임을 만든다. 이를 통해 다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던 프로그래밍 교육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다.

넥슨컴퓨터박물관의 '꿈이 IT니?'는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당 체험시간은 약 40분이며 최대 20명까지 참여가능하다. 체험비용은 무료이나, 컴퓨터박물관 관람비는 별도다. 단, 제주도내 중1 학생은 무료로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를 원할 경우 '꿈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4-710-5180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mailto:hj_kim86@donga.com)

#### 체험활동 연관 직업

**게임기획자:** 게임제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다. 또한 장르, 연령, 난이도, 캐릭터, 스토리 등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좋아할만한 새로운 게임을 기획한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낼 수 있는 통찰력과 창의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게임개발은 일반적으로 팀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도 갖춰야 한다.

● 한국임업진흥원 산하 대전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미래유망 녹색직업 체험’

## “나는 산림의 수호자, 해충을 몰아내자!”



현미경을 활용해 선충을 관찰, 구별하고 있는 학생들. 대전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제공

‘임업 분야 종사자’하면 어떤 직업을 떠올릴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목수, 조경사 등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임업 분야에는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미래에 각광받는 직업들이 존재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의 대전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는 대한민국산림에 이바지하는 미래직업을 소개하기 위해 ‘미래유망 녹색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익숙지 않은 산림분야의 진로를 제시하기 위해 미래 유망직업으로 꼽히는 나무의사와 산악형 드론 조종사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래유망 녹색직업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직무실습에 앞서 이론 강의를 듣는다. 이론 강의에서는 나무의사와 산악형 드론조종사에 대한 직업 소개와 안전한 실습체험을 위한 안전교육 등이 이뤄진다.

이론교육이 끝난 뒤 학생들은 모듈별로 나무의사와 산악형 드론 조종사 직업 실습교육을 순차적으로 체험한다. 나무의사 분야에서는 △산림병해충의 이해 △광학현미경을 활용한 산림병해충 관찰 △병해충 피해 진단·검경 등 현미경을 직접 조작하며 나무를 해치는 선충을 관찰·구별하는 체험을 한다. 드론조종사 분야에서는 드론 운용 절차,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드론 조종체험 등 드론을 활용해 산림병해충을 예찰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림분야를 체험하고, 그와 연관된 미래혁신기술도 경험해 볼 수 있다.

직업체험 활동을 마친 후에는 활동과 관련한 질의응답과 센터전문가와 의 진로상담이 진행된다. 이론부터 진로상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산림분야 전문가인 센터직원이 참가해 학생들은 실질적이고도 전문적인 직업체험을 할 수 있다.

대전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의 ‘미래유망 녹색직업 체험’은 12월말까지 운영된다. 회당 20명 내외의 인원이 참가할 수 있다. 체험시간은 2시간이며 체험비용은 무료다. 참가를 원할 경우 ‘꿈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42-381-5145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 **체험활동 연관 직업**

**나무의사:** 산림 및 생활권 수목의 병충해 피해를 진단해 처방·예방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무가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목병해충을 방제하고, 상해가 있는 부분에 외과적 처치를 하거나, 토양 상태를 점검하여 뿌리가 자라는데 알맞은 환경을 제공한다. 수목은 물론 토양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세심한 관찰력과 인내심 등도 요구된다.